



너그러운 사장 vs 강경한 노조? 여론전이나 괴담 유포냐

박정찬 사장의 새로운 이미지가 일부 간부와 특파원들을 중심으로 사내에 퍼지고 있다.

박 사장이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양보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노조는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를 거부했다는 얘기가.

노조의 이런 자세 탓에 노조에 절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사내 여론에 점차 기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다.

실제로 일부 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사석에서 “조합원들이 사장 제안을 알고 있느냐. 사장이 각서까지 써 주겠다고 하는데 노

조가 왜 안 받아들이느냐”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노조는 주말까지 사측이나 박 사장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전달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사측은 논란이 일자 사장의 최초 제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불신임투표 정족수 기준 변경을 뒤늦게 언급했지만, 노조로서는 금시초문이나 마찬가지였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알리는 말씀’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알리는 말씀〉

연합뉴스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조의 파업투쟁과 노사 대화에 관해 잘못 알려지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설명드립니다.

지난 25일 노조가 낸 ‘23년 만의 파업, 진짜 대화로 풀겠습니다’ 제의와 관련해 사측은 어떤 입장도 밝혀 오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사장이 불신임투표 정족수를 3분의2에서 2분의1로 낮춰 제안했는데 노조가 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사내에 퍼지고 있습니다.

경위와 상관없이 대화로 파업 사태를 풀겠다는 노조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조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적어도 진정한 대화상대라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노조는 사장의 신뢰가 확인되는 대로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대화 노력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논의하지도 않은 얘기를 흘리고 여론몰이를 하는 일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30분 지각한 박정찬 사장, 5분만에 물러가 연합뉴스 노조, 출근 저지 투쟁 나흘째

박정찬 사장은 연합뉴스 조합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으로 전날 아침 ‘황당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서 5분만에 자리를 떠났다.

연합뉴스 조합원 140여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사장실에 집결해 나흘째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박 사장은 인사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도열한 가운데 9시30분께 사장실이 있는 7층에 도착했다. 공병설 노조 위원장은 전날 박 사장의 ‘주문’대로 “힘차게 구호 세 번 외치겠다”며 박 사장과 맞섰다.

“연합뉴스 바로서야 한국언론 바로선다”

“연임저지 놓쳤지만 퇴진투쟁 승리한다”

“3년동안 참아왔다 더 이상은 못참겠다”

공 위원장이 구호를 외친 뒤 “해산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전날 출근저지 투쟁 때 “힘차게 구호 세 번 외치고 헤어지자”며 황당한 태도를 보였던 박 사장은 “어제 얘기를 좋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본의 아니게 전달됐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말했다.

성기준 전무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박 사장의 출근 길을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썼다. 성 전무는 “길을 터드려 일하게. 일해야 될 거 아니야. 길 터드리라고. 여긴 업무공간이야!”라며 시종 목소리를 높였다.

박 사장은 결국 7층 임원실에는 발도 디디지 못한 채 5분 만에 성 전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발길을 되돌렸다.

조합원들은 박 사장의 출근을 성공적으로 저지하고 8층 회의실에서 파업 영화제를 열었다.

지금 지방본부는 투쟁중

대전충남본부, 출입처 선전전 전개

대전충남취재본부 조합원 6명은 지난 22~23일 주요 출입처를 방문해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파업의 의의를 전함과 동시에 뜨거운 투쟁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원들은 22일 충남 연기 베어트리파크를 방문해 홍보팀 직원들과 공원을 걸으며 국가기간통신사 바로세우기의 중요성에 대해 알렸다.

베어트리파크 직원들은 “우리 소식을 전해줄 가장 중요한 통로가 잠시 ‘공사 중’이라 아쉽지만, 꼭 뜻을 이루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합원들은 공원 내 반달곰 등을 구경하면서 “파업대오를 유지한 채 우직하고 지혜롭게 전진하자”는 결의를 굳게 다졌다.

비가 내리던 23일엔 대전에서 차로 1시간30분 정도 떨어진 당진 현대제철을 찾았다.

이곳에서 현대제철 직원들은 드넓은 공장을 안내 해주며 갓 뽑아낸 ‘씻물’을 한 사발씩 권했으나 조합원들은 “파업 열기 덕분에 이미 몸 안의 피는 씻물보다 뜨겁다”며 사양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씻물’은 마시지 않았지만 대신 지역의 제철 별미



인 ‘실치회’를 나눠 먹으며 지역 사회의 끈끈한 정을 나눴다.

현대제철의 한 관계자는 “파업 중에는 조합원 간 결속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완숙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줘 모두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조합원 11명이 모두 파업 대오를 유지하는 대전충남취재본부는 앞으로도 세종시·내포신도시 등 주요 출입처를 도는 ‘사쓰마와리 전략’으로 연합뉴스의 기사를 애타게 기다리는 취재원과 계약사에 강한 투쟁의지를 전할 예정이다.

출입처에서 연합뉴스 기자가 사라졌다

※ 출입처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동거 동락하던 타사 기자들이 파업을 응원하는 글을 보내왔다. 이들은 연합뉴스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진다면 파업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라고 기원했다.

▲경향신문 정희완

평소 밝게 웃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을 거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기자실 간사를 맡은 연합 기자의 빈 자리가 큼니다. 출입처의 많은 취재원들도 “연합 간사는 언제쯤 돌아오느냐?”, “돌아오면 같이 식사나 하자”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쓰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투쟁현장에서 찌라시란 단어를 내뱉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투쟁의 목적 달성하시고 하루빨리 본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도 꼭 챙기시고요!

▲헤럴드경제 정치부 손미정 기자

국회 출입하는 정치부 말진입니다. 늘 살을 맞대며 지내던 말진 동료들의 자리가 며칠째 비어 있습니다. 석간만

이 눈 떠 있는 외로운 새벽에도 함께 언제나 든든한 동지가 되었던 그들이 없으니 요즘 아침은 유난히 더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 회의 후에 회의장 앞에서 함께 뺨치던 동료도, 툼툼이 웃고 떠들며 깨알 같은 시간을 보내던 소중한 친구도 줄었습니다. 언제나 믿고 기댈 수 있었던 연합뉴스 동료와 선배들이기에 빈자리는 더욱 큼니다. 하루빨리 ‘소중한 동료’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어서 돌아오길 응원하고 기다릴게요.

▲서울신문 이민영

법원 기자실에서 빈 연합 자리를 볼 때마다 속상하고 허전합니다. 좀 전에는 짝꿍인 나확진 선배의 의자에 누가 앉았기에 갖다 놓으라며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고 말았지 뭐예요. 제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연합 동기들·선배 기자들과 함께 즐겁게 웃으며 취재하고 기사 쓰는 날이 곧 올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제가 속해있는 서울신문이나 연합뉴스나 각자의 보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빨리 현장으로 돌아오세요. 보고 싶어요.

▲한국일보 남상욱

선배, 후배, 동기 연합 기자님들 힘내세요. 이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공정보도라는 게 이렇게 투쟁을 해야 언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론 슬프기도 하면서, 그 현실에 눈감지 않은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곧 우리 기자의 승리라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믿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사 최OO 기자

솔직히 연합뉴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취재와 리포트 제작을 마치고 한숨 돌릴라 치면 어김없이 연합뉴스 기사창엔 새로운 기사가 올라옵니다. 부지런한 연합뉴스 선배들이 실시간으로 기사를 쏟아내는 통에 자정에 가까운 한밤중에 연합 기사를 확인하느라 혼을 뺨 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금 부정 선거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사람, 각종 공약을 발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데도 연합뉴스 기사창은 귀족은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늘 뺨치기 현장을 지키며 고락을 함께했던 말진 동료

들도 그렇습니다. 성실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연합 선배들을 4년에 한번 있는 총선 취재마저 뒤로 한 채 일손을 놓게 한 연합 사장님이 어떤 의미에선 참 대단한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평소 취재하듯 끈질기고 집요하게 투쟁하시면 가까운 시일 안에 꼭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J일보 이OO 기자

한 정부부처를 출입하는 말진 A씨는 “연합뉴스가 없으니 기자질 못해 먹겠다. 우리도 파업하면 안되냐”며 최근 한 술자리에서 진상을 부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참석자 등에 따르면 주니어 기자인 A씨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연합이 파업하니 아침 일찍 출근해 기자실 히터 틀어주는 사람도 없고, 초를 치고 ‘우라카이’를 하려 해도 재료가 없으니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며 울먹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평소에도 “연합 없이는 못 산다”며 “휴가도 연합 기자와 갈 것”이라고 말해 한때 기자실에서 연합뉴스 기자와의 염문설이 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